

[전체공지]

※ 교황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온전한 정의)  
법을 집행하는 모든 이가 공정하게 일하여 이 세상에 더 이상 불의가  
만연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 제 10 차 미 동남부 성령대회  
· 일시: 2019 년 9 월 1 일(주일) 1:30pm ~ 9 월 2 일(월) 5:00pm  
· 장소: 애틀란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 주제: "무엇을 찾느냐? 와서 보아라."  
· 강사: 왕영수 프란치스코 신부, 안정호 이시도로 신부  
· 참가비: 8 월 11 일 이전 등록시 \$30, 이후는 \$40

[잭슨빌]

- 주일 미사후 신부님과 사목회장님이 올랜도에서 열리는 플로리다  
사제와 사목회장 친교와 연수에 참석하기 위해 떠납니다.
- 미사후 성모회가 있습니다.
- 다음주 미사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 지붕수리를 위한 건축헌금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게인즈빌]

- 다다음주 미사 (7 월 20 일)는 신부님 시애틀 일정으로 미국미사 (오후  
5 시 30 분)로 대체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 타	총 계
게인즈빌	\$215	\$200	-	-	\$415
잭슨빌	\$247	\$700	\$600	-	\$1,547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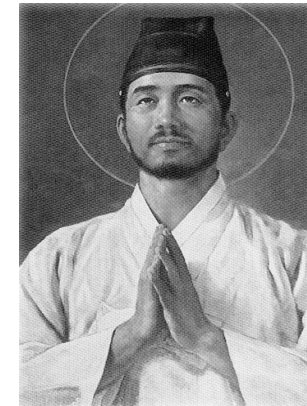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성프란치 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송재민 하상바로로 (904) 226-7191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860) 906-6567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 오늘의 묵상

제 1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바빌론 유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평화와 위로를 예언합니다.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 위로와 평화를 주시면, 주님의 종들이 그분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와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이사 66,18 참조). 그러나 원수들에게는 하느님의 진노가 닥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불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이사 66,14-17 참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시간, 곧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드디어 주님의 평화가 내렸음을 선포하라고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제자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며, 마귀들마저 복종시킵니다.

하느님께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덕분이 아니라, 당신의 무상적인 은총 덕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만 하느님의 위로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곤 하였습니다.

이에 바오로 사도는 제 2 독서에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새 창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 의롭게 되고, 거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거저 낙인을 받았음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이름을 당신 책에 거저 적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 < 8. 찬미하여라 >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 - ly name.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 - to life.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 연중 제 14 주일

[제 1 독서] 이 사야서 66,10-14 ㄷ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화답송] 시편 66(65),1-3 ㄱ. 4-5.6-7 ㄱ. 16 과 20(◎1)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 2 독서] 갈라티아서 6,14-18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알렐루야.

[복음] 루카 10,1-12.17-20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다.>

###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7/6)	고승희 엘리사벳	이명순 로사	이영순 프란체스카	-
	잭슨빌 (7/7)	이교순 카타리나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김정숙 켄마 렉시 베로니카
다 음 주	게인즈빌 (7/13)	이호석 레오폴드	이재원 엘리사	하이흔 율리아	-
	잭슨빌 (7/14)	윤미임 데레사	최명희 크리스티나	이재민 토마스	이상미 미리암 서정원 헬레나

### <미 사 성 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건
게인즈빌	421	645	337	596
잭슨빌	461	512	168	31